

#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전망

이준배

안보문제연구소 국방관리연구센터

2024.1.11.(목)



# 미중 무역분쟁 진행상황

- 2018년 트럼프 정부의 관세 도입으로 미중 무역분쟁 시작
- 바이든 정부는 핵심 전략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데 주력
  -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규제(22.10월)
  - 중국 첨단 기술(반도체/인공지능/양자)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(23.8월)
- 인권, 환경, 반부패 등 중국이 민감한 이슈로 전선 확대
  - 신장-위구르 관련 기업/개인 추가 제재(23.9월)
  - 중국을 배제한 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출범(22.5월)

**2017:** U.S. President Donald Trump withdraws the United States from the TPP.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launch the U.S.-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.

**2020:** Washington and Beijing reach a "Phase One" trade agreement.

**2022:** U.S. President Joe Biden institutes stringent export controls on computer chips in an effort to restrict China's advanced manufacturing sector.

Source: CFR research.

2015

**2015:** The Obama administration concludes negotiations for the Trans-Pacific Partnership (TPP).

**2018-2019:** Trump imposes a sweeping set of tariffs on Chinese goods, leading to several rounds of tit-for-tat retaliation until U.S. tariffs cover nearly all Chinese imports.

-2020

**2023:** Biden signs an executive order restricting some U.S. investment in Chinese high-tech industries.

COUNCIL ON  
FOREIGN  
RELATION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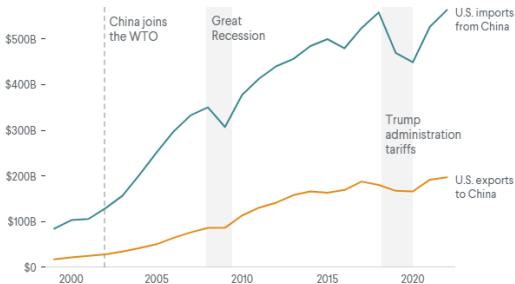
(<https://www.cfr.org/backgrounder/contentious-us-china-trade-relationship>)

# 공급망 이슈 - 미국

-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다수의 국가/기업들이 기존 환경에 최적화된 중국 사업체 철수/이전을 고려
  - 특히 시장 논리로 투자를 진행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큼
  - 일부 기업들은 트럼프 시기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(23.2월)
- 미국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
  - 2022년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은 5000억 달러 돌파

U.S.-China Trade Surged Over the Past Two Decades

Trade in goods and services



Source: U.S. Bureau of Economic Analysis.

COUNCIL on  
FOREIGN  
RELATION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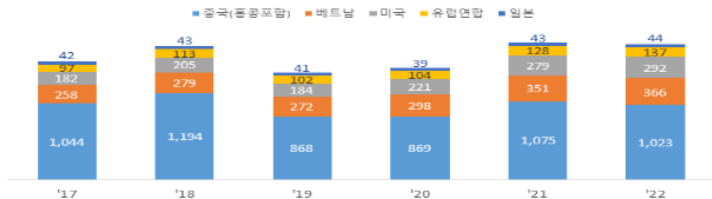
# 공급망 이슈 - 중국

- 중국은 통제 체제를 가동하여 초기의 무역장벽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
  - 수입 통제로 무역 흑자 감소폭 최소화
  - 중국제조2025(2015 발표) 등 자체 기술 개발과 제조업 육성 전략 추진
- 미국 제품과 서비스 추가 구매 약속('Phase One' 합의(2020)) 불이행
  - 중국의 미국 수입액 상승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집중
- 그러나 외국 자본/중국 기업의 중국 이탈 가속화하는 중



# 한국에 미치는 영향

- 한국은 특히 중간재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전략적 취약성 노출
  - 한국이 무역적자이면서 대중국 수입의존도 70%가 넘는 ‘취약품목’의 중간재가 366개로 미국/일본보다 많음 (산업연구원, 2020)
-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음
  - '22년 ICT수출 2333억 달러(총수출 6839억 달러)에서 대중국 비중이 1023억 달러이며, 이 중 715억 달러가 반도체



(자료: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(23.1.12))

- 중국의 취약품목 수출 규제, 수요 둔화와 제조역량 강화, 미국의 통제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





- 저-기술집약 품목 수입선 다변화: 요소수, 희토류 등
  -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무기화의 효과가 크며 중국 입장에서도 일회적인 활용만 가능. 중국 내부의 요인에 대비하여 디리스킹 (de-risking) 필요
- 자체 역량 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입지 확보:
  -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(미국산 장비 반입)에 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
  - 이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선도적인 지위에서 기인
- 우리나라 기술역량 강화로 후발 국가와의 격차 유지:
  - (예) 중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/휴대폰 판매 부진
  - 반도체, 양자컴퓨팅, 방산 등 첨단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

